

내 전을 지어준다니까 하는 말인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 사년 시브월 곧 이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육십 규빗이요 광이 이십 규빗이요 고가 삼십 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불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여섯 규빗이요 제삼층 다락의 광은 일곱 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드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삼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결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개역, 열왕기상 6:1~13]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저 회 부모님들이 좀 어렵게 사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조그마한 단칸방에 형제들 다섯명이 부모님과 나란히 누우면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학 마치고 군에 갔다와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룻 끝에 전세집을 하나 얻었는데 이상하리만치 방 하나가 넓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그렇게 큰 방에 주무시게 된 게 처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불 개고 펴고 할 필요없다. 넓은 방에 밤새도록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구르며 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선합니다. 전세집이었지만 넓은 방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토록 자기 집 없이 사시던 부모님들에게 어떤 아들이 출세해서 집 한 채를 사드렸다면 그 부모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소작농을 하시던 부모님에게 출세한 자식들이 돈을 많이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드린 것 같습니다. 비유컨대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사셨던 하나님께 솔로몬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어드린 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잘 지켜라’고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혹은 많은 돈을 사서 드렸을 때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준 태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왜 염치도 없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는데도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

출애굽기 뒤편에 보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재미없는 본문일 겁니다. 잘 읽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 대충대충 읽기도 하고 그냥 건너 뛰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밍다고 반복되는 바람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같은 내용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찬찬히 공부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광야 사막 땅에 세마포로 포장을 둘러 쳤습니다. 길이와 넓이가 10규빗, 30규빗이니 폭이 9m이고 길이는 27m정도입니다. 높이는 1.5m 정도 되는 포장입니다. 사막에 이런 포장을 둘러치고, 그 안 입구쪽에 흙을 돋워서 단을,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물두멍이라는 손을 씻는 큰 대야도 만들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성소라고 하는 길쭉한 방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은혜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00% 조립식 건물이어서 이동할 때는 다 풀어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나타나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분해해서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 하나 분해해서 다 철거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크기는 보통 4인 가족이 쓰는 식탁의 절반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꿰어져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민망한 어른 대접

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팔세를 당했습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정말 서러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몇 년간을 그렇게 지냈을까요?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480년이요...' 애굽에서 나온 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시간이 480년간인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대접을 못받았습니다. 법궤를 안치해둘 제대로 된 집도 없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제대로 보관했겠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사장 엘리 시절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왕에 죽을 것이니...' 하면서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신, 다곤신 앞에 갖다 놓지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다곤신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잡아왔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날아가고, 팔 다리가 날아가고, 굴렀더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 이거 법궤를 우리 신 앞에 두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다섯 도시를 순회합니다. 갖다 놓는 곳마다 거기에 온갖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거 안되겠다' 옆 동네에 또 옮겨 놓습니다. 거기에 또 온갖 재앙이 떨어집니다. '야, 이 재앙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수레에 실어서 벤세메스로 가나 서험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벤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고 '이것이 그 유명한 법궤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걸 열어보았다가 한 마을 사람들이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법궤가 머물러 있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던, 아주 거룩하게 모셔졌던 이것을 벤세메스 사람들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싶어서 열어보았던 말이에요. 벤세메스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 좀 가져가거라' 해서 기랴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다 놓아 두었는데 적어도 80년 이상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법궤를 이렇게 천대를 해도 별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도 집이...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찾습니다.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안되고 수레에 실어도 안되고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했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옷사가 잡으려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오랫동안 참았던 분노가 거기서 터졌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아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겠다'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때 오벧에돔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편을 잘 알았고 자기 집마다 두 달간 모셔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재차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자기 성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회막과 법궐은 따로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제자리에 모셔두기까지 4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모셔도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천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누가복음 9:58)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팔세받고 고생하셨는지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가 보면 하나님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머무를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셨습니까? 그러나 ‘너는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크기는 길이가 60규빗이고 폭이 20규빗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회막의 크기와 비교하면 길이가 꼭 두배입니다. 60규빗 20규빗, 대략 폭이 10m 길이가 30m입니다.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90평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큼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회막에 비하면 상당히 커졌습니다. 높이가 15m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안쪽 방은 1년에 한 차례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방이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건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부가 벽, 바닥, 천장 안에 있는 기물까지 완전하게 금으로 된 집입니다.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집이 되지 않을까요?

이 집을 지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 있는데 옆에 부속 건물을 만들면 부속 건물의 들보가 본 건물 벽으로 들어가서 얹히는 게 정상인데 이 건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속 건물의 들보가 성전 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전 벽 바깥에다 다시 들을 쌓아 올라가지고 거기에 들보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물의 내부는 3층으로 되었는데 밑층의 방 폭이 좁아요.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대들보를 걸친 만큼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사중에도 현장에서 철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들여다 보면 가슴 아픈 적이 더러 있습니다. 공사하는 인부들이 현장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보기가 싫더군요. 공사중인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술 먹고 술병 던져 놓은 것이나 담배꽂초를 보면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교인들이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짓는 과정에서조차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드리고 귀하게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계실 곳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본문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없이 오래도록 사셨는데 언젠가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면서 살던 집을 미처 처분을 못하는 바람에 집이 두 채가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는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나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나 그게 그겁니다. 똑같은 건데도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얼굴이나 품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는 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용자를 좀 얻어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채형저축을 들고 저의 부친의 이름으로 용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용자를 받았습니다. 갚기는 제가 갚구요.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품이 다르더라고요. 작은 아파트거나 말거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탠 것이 전혀 없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것만으로도 뿌듯해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이쉬운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니라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480년동안 집도 없이 천대받던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무슨 상급이라도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 내가 말하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만 하시느냐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와 우리 부모

님과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500년이 지나가는 데도 하나님께서 화도 안 내셨을까요? 아니면 야단도 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궁핍해서, 형편이 어려워져 집을 지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보고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하고, 솔로몬은 전달받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회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니까 네가 집을 지어다오' 그래서 만든 집이 아니라 뜻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멋진 집을 만들었다'는 내가 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게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훌륭한 집을 지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80년이나 집이 없어 떠돌아 다녔다고 해서 한이 맺힌 하나님이 아니라 애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그동안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집을 만들어 드렸으니 여기서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정말 철없는 것입니다. 철없는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집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8장 2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하들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도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는 집을 짓긴 왜 지었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와서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는 29절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라고 하는데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하셨으니 이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화려하고 이 성전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말하자면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멋진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요'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철없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지 않았더라는 애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합니다' 하면 이 말 한마디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쥐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기 전에 사랑을 많이 쏟아서 키우십시오. 그러면 어설픈 사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잘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아이들이 나를 좀 봐 주지 않나?' 하는 수도 있고, 혹은 인기에 연연하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도 모르고 그냥 베푸는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생님이로 안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지켜야 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집이 없어서 아쉬운 분인가요? 인기를 구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 열심히 드리지 말고 이 놈아 말 좀 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제사 제물에 굶주린 사람이나? 아니란 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뭘니까? 수양의 기름이나 제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지요.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러라' '성전 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져 와서 '하나님 제 소득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할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 많이 줄게' 그런 하나님 같아 보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 같으면 좋다고 덤씩 받고 돈을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취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예요. 오히려, '나같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실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 했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얼마나 드렸으며 교회를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까? 새벽기도도 다 나오고 주일에 하루 종일, 수요일, 구역예배, 금요심야기도회, 이만하면 하나님 잘 했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조금 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전의 휘장을 찢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성전의 휘장을 왜 찢어놓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몇 번 나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잘 했죠?' 이라고 있으면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내가 나아올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밥 안 먹으려는 아이에게 자꾸 밥 먹이려고 하니 진짜 철없는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나 밥 다 먹었는데 얼마 줄래?" 밥 먹으라고 사정하니까 엄마 좋으라고 밥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밥 다 먹는 게' 굉장한 공로인줄 압니다. "내가 밥 다 먹었으니까 얼마 줄래?" 그런 딸 되게 뭘요? 안 뭘습니까? 철없는 아이이지만 미운 건 아닙니다. 그냥 철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쁘죠! 철없는 것을 해도 부모에게는 아름다운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것을 해도 닦할 바는 아닙니다. 계속 철없는 것을 하며 하나님께 재롱떨며 사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어린아 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일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드리는데요, 저는 계산할 때 세금도 안 떼고 아무 것도 안 떼고 조금 더 붙였습니다. 잘 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감사헌금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십일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십일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감격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일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열배 스무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더 어른스러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일입니다. 찬양대도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연습하고 예배를 도우고 있으니까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어릴 뿐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호를 내 입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하고 거기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강도사는 무슨 낙으로 살까요? 앞으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꿈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맛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재미없고 길기만 한 설교를 은혜롭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안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밋졌습니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네 하나님으로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색해서 내가 보태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 해드리는 것 아니요, 성전도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녀삼으셨구나' 하는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행복한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이런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뭘로 지어드려요? 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파한 거래관계로 파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주셔야지요? 이걸 어린 아이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엄청난 사랑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